

#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판독 글자 재검토

성재현\_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관

## I. 머리말

## II. 2013년 판독 글자 소개

## III. 글자 재검토와 해독 순서

## IV. 맺음말

#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판독 글자 재검토

성재현

## I. 머리말

불비상佛碑像은 돌을 비석 형태로 다듬어 앞면이나 네 면에 불상을 조각하고 조상기造像記를 새겨 넣은 석상을 말하며, 비상碑像·불비佛碑·조상비造像碑 등으로도 부른다.

불비상은 불교조각사 연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문화재이자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불비상의 조상기는 생략되기도 하지만 제작 시기와 배경 등을 담고 있어 당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의 불비상은 현재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7구가 전하고 있으며, 모두 국가지정문화재이다.<sup>1)</sup> 이 가운데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계유명삼존천불비상, 기축명아미타불비상,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등 4구는 조상기가 새겨져 있어 발견 당시부터 관심이 집중되었고 글자 판독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sup>2)</sup>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은 제작 연대 및 발원 내용을 포함하여 당시의 사회상과 사상적 배경까지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1 불비상의 지정문화재 명칭은 아래와 같다.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국보 제106호)

계유명삼존천불비상 癸酉銘三尊千佛碑像(국보 제108호)

기축명아미타불비상 己丑銘阿彌陀佛碑像(보물 제367호)

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 彌勒菩薩半跏思惟碑像(보물 제368호)

세종시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 世宗市 蓮花寺 戊寅銘佛碑像 및 臺座(보물 제649호)

세종시 연화사 칠존불비상 世宗市 蓮花寺 七尊佛碑像(보물 제650호)

삼존불비상 三尊佛碑像(보물 제742호)

2 불비상 연구 초기 조성기 판독과 관련한 대표적인 글로는 아래의 자료가 있다.

郭東錫, 「新羅佛碑像의 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碩士學位論文, 1984).

金昌鎬, 「癸酉銘全氏阿彌陀三尊佛碑像의 銘文」, 『新羅文化』第8輯(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91).

黃壽永, 「忠南燕岐 石佛調査-百濟遺民에 의한 造像 活動」, 『韓國의 佛像』(文藝出版社, 1989).

이 글에서 소개하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은 가장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다. 연구 초기부터 대략 260여 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180여 자 정도를 판독하였다. 한편 불비상의 글자 판독 작업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사례도 있다. 국립청주박물관은 2013년 4월 불비상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RTI 촬영기법을 이용하여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에 새겨진 글자를 다시 정리하였다. 그 결과 당시 견해를 달리하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10여 자를 비롯하여 새롭게 찾아낸 글자 4자, 새로 추정한 글자 6자 등 대략 20여 자를 소개하고 이를 국립청주박물관 판독안으로 제시하였다.<sup>3)</sup>

이 글은 2013년 판독 글자 가운데 검토의 필요성을 느낀 몇 글자를 다시 살펴보고, 판독 자료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해독 순서의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단상을 간략히 적어보고자 한다.

## Ⅱ. 2013년 판독 글자 소개

7구의 불비상 중 네 면 모두 글자가 새겨져 있고(도 1) 조상기와 조사기造寺記가 함께 있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은 해독 순서에 여러 관점이 제시되었다.

먼저 관습적으로 정면을 중시한 정면→우측면→좌측면→배면의 순서는 황수영,<sup>4)</sup> 비문碑文의 한자 판독 원리와 조사造寺 및 조상造像 개념에 따른 우측면→배면→좌측면→정면의 순서는 김창호·곽동석·강진원 등의 견해가 있었다.<sup>5)</sup> 한편 김주성은 정면을 시작으로 보면서 지식智識의 이름을 나열하는 면이 우측에서 끝나고 그 다음으로 배면의 인명이 이어진다고 보고 정면-우측면-배면-좌측면의 순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 측면을 시작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는 불상 명칭을 정면에서 밝히려 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sup>6)</sup>

필자는 2013년 당시 정면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황수영과 같이 정면→우측면→좌측면→배면 순으로 정리하였다.<sup>7)</sup> 판독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RTI(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촬영은 조명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변화를 이용한 촬영기법으로, 금석문 등 명문 판독 연구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 국립청주박물관은 2013년 특별전『불비상, 염원을 새기다』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의 도움을 받아 RTI촬영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글자를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글에 수록되었다.

성재현,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글자의 내용-새로 판독한 글자 소개」, 『불비상, 염원을 새기다』(국립청주박물관, 2013).

4 黃壽永, 앞의 논문(1989).

5 郭東錫, 앞의 논문(1984).

金昌鎬, 앞의 논문(1991).

강진원, 「癸酉銘 阿彌陀三尊四面石像佛 名文」, 『한국고대문자자료연구 : 백제(하)』(주류성, 2015).

6 金周成, 「百濟 泗泚時代 政治史 研究」(全南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2).



도 1.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글자 배치도(■ : 글자가 새겨진 부분)

十	內	此	佛	願	上	△	(世)	像	阿	同	二	述	全
六	外	石	像	敬	爲	道	至	觀	弥	心	兮	況	氏
(徒/走)	(并/井)	佛	卅	造	(國)	△	像	音	陀	敬	介	右	△
△	(百)	像	也	化	△	△	△	大	佛	造	术-等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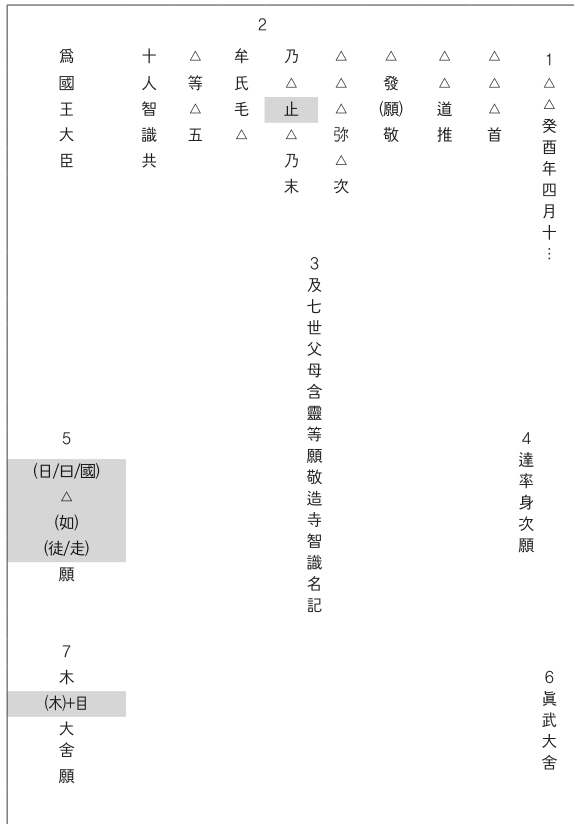
도 2.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글자[정면]

\* ■ : 2013년 새로 판독하거나 정리한 글자(도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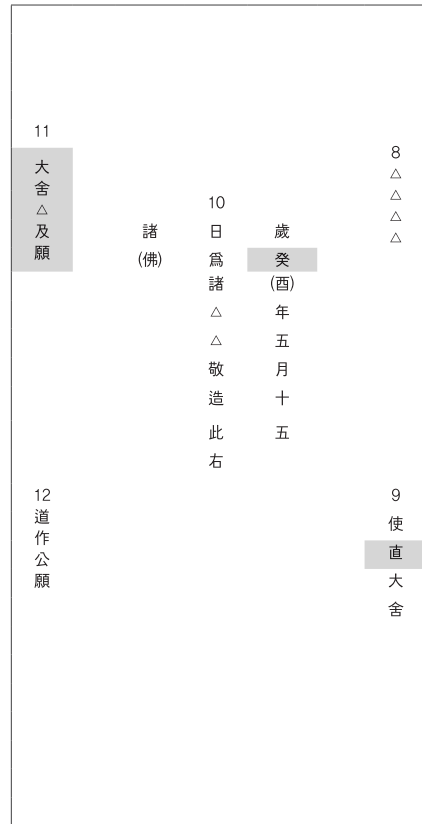
먼저 정면에서 새로 확인된 글자는 ‘右’, ‘术’, ‘化’, ‘卅’ 등이 있다(도 2). 특히 ‘术’으로 읽혀왔던 ‘术’은 木의 우측 위에 점 하나가 찍혀 있음을 확인하여 ‘等’의 고어古語임을 밝혀내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化’와 ‘卅’은 앞뒤의 글자와 이어져 뒷면에 조각된 화불化佛 20구를 자연스럽게 암시해주고 있다. 뒷부분의 ‘并百’ 또는 ‘井百’으로 추정된 글자는 황수영에 의해 ‘십방+方’으로 읽혀졌는데, 이 부분은 이어지는 ‘十六徒(走)’ 등과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7 성재현, 앞의 논문(2013).





도 3.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글자[우측면]



도 4.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글자[좌측면]

우측은 상단, 좌우 가장자리, 가운데 부분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동안 ‘正’으로 읽혀왔던 2의 ‘止’는 맨 위쪽의 가로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 5와 7부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거나 사람의 이름으로 추측해 볼 수 있었다(도 3).

좌측은 좌우 가장자리와 가운데 부분에서 글자를 확인하였다. 9에서 ‘三’ 또는 ‘眞’으로 읽혀 왔던 글자를 ‘直’으로 판독하였고, 10에서는 ‘歲’ 다음에 ‘癸’가 이어져 ‘歲癸(西)年五月十五’로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11은 맨 아래 ‘願’자 위로 ‘大舍△及’을 확인하였다(도 4).

뒷면은 4개의 단에 각각 5구의 부처가 배치되고 그 사이사이에 글자를 새겨 넣었다. 새겨진 글자는 화불 20구의 시주자들로 보이는데, 불분명하거나 두 가지로 읽혀 왔던 글자를 재확인하였고, 또한 ‘上次乃’처럼 글자를 추정하기도 하였다(도 5).

△	△	豆	三	与
△	△	兔	久	次
△	△	大舍	知	乃
△	△	願	乃	末
			未	
△	△	(上)	夫	△
△	△	(次)	信	△
△	△	(乃)	大舍	大舍
師	△	△	願	願
惠	△	△	一	△
信	久	及	久	大舍
師	大舍	△	大舍	△
	願	△+舍	願	小舍
		願		願
普	△	惠	林	△
△	身	明	許	夫
△	(道/通)	法	乃	乃
△	師	師	未	未
			願	願

도 5.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글자[배면]

위 내용에 따라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정면] 全氏△△. 述況右△. 二兮介 등이 마음을 모아 위해 아미타불상阿彌陀佛像과 관음觀音. 대세지상大世至像을 예를 갖추어 만들탁다. …… 화불化佛 20구를 예를 갖추어 만들탁다. ……

[우측] 계유년癸酉年 사월 십(일)에 …… 때문에(造寺-사찰을 만들게 된-이유) 공경되 이 발원하여 弥△乃△. △止乃末. 牟氏毛△△ 등을 비롯한 △오십명의 지식智識이 함께 극 왕, 대신, 칠세부모, 모든 중생衆生을 위해 예를 갖추어 절을 짓고 여기에 관계한 지식의 인 명을 기록한다. <이하 인명과 관등官等を 나열> 達率身次, 眞武大舍……

[좌측] 계유년 오월 십오일에 제(佛) … 을 위해 예를 갖추어 만들탁다. 이 오른쪽의 …… <이하 인명과 관등> △△△△, 大舍△及,,使直大舍, 道作公

[배면] <이하 인명과 관등官等を 나열> 与次及末, 三久知乃末, 豆兔大舍, △△△△, △△△△, △△大舍, 夫信大舍, (上)(次)(乃), △△△△, △△△師, △大舍△小舍, △久大舍, △及△(△+舍), △久大舍, 惠信師, △未乃末, 林許乃末, 惠明法師, △身(道/通)師, 普△△△

### Ⅲ. 글자 재검토와 해독 순서

전체적인 내용의 해석은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궁금증이 있었던 정면의 몇 글자를 중심으로 재검토와 함께 해독 순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난 2013년 판독 내용 중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정면이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2행의 글자들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갖고 있었다. 당시 ‘木’, ‘化’, ‘井’ 등 새로 판독한 글자는 정면 앞부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는 글자로 보았다. 다만 마지막 2행의 ‘内外(井百/井百)’과 ‘十六(徒△/走△)’은 불비상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다시 판독한 결과, 13행의 ‘井百’ 또는 ‘井百’의 두 번째 글자는 ‘百’자가 분명해 보이며, 앞 글자는 ‘井’과 ‘井’이 아닌 김창호가 판독한 ‘三’으로 보고자 한다. ‘井’과 ‘井’으로 볼 수 있는 세로선은 이 글자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글자를 배열하기 위한 방안선方眼線으로 볼 수 있기도 하며, 군데군데 명확하지 않은 세로선이 확인된다.

그리고 마지막 행의 ‘徒’ 또는 ‘走’는 ‘走’부분이 확실하고 왼쪽에 ‘彳’으로 추정되는 부수가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徒’로 읽고자 한다. 아울러 정면의 마지막 자이자 ‘徒’ 다음 글자는 ‘也’로 추정할 수 있는데, 11행 ‘井也’의 ‘也’와 유사한 획을 찾아볼 수 있다(도 7).

7행에서도 정면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글자가 있다. 그동안 ‘大(世)至像’의 다음 글자는 명확하지 않았는데, 11행의 마지막 글자와 유사하여 ‘也’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9행의 ‘上’은 RTI 판독에서 ‘正’으로 읽을 수 있었다(도 8).

이를 정리해보면, 1행의 ‘全氏’부터 ‘大(世)至像(也)’의 7행까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부터 11행 ‘也’까지는 뒷면의 화불 조성을 알려주는 단락이며, 이어서 12~14행은 ‘이 석불상은 삼백십육명의 사람들이……’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内外’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이 불비상의 발원과 관련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암시하거나 수식하는 단어로 볼 수 있겠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계유명삼존천불비상의 발원 참여자가 250명이란 점<sup>8)</sup>에서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발원에 참여한 인원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8 계유명삼존천불비상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행을 기준으로 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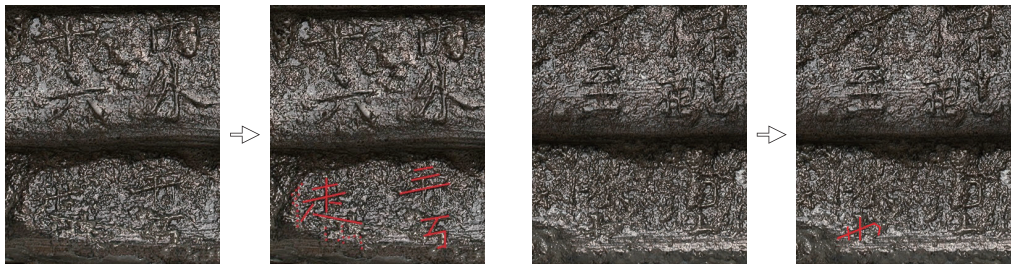
歲癸酉年四月十五日香徒(釋)(迦)及諸佛菩薩像造 石記△△是者爲國王大臣及七世父母法界衆生故敬造之 香徒名彌次乃(眞)牟氏大舍上生大舍△仁次大舍△宣大舍贊不小舍大使△+舍△△△小舍△狗(等)二百五十△  
국립청주박물관, 『불비상, 염원을 새기다』(2013)를 참고함.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의 정면 글자는 <도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정면 이외에 좌측의 글자인 歲癸(西)年五月十五日爲諸△△敬造此右諸(佛)에서 '右'로 판독했던 글자는 '石'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문맥상으로도 '爲' 다음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경조 敬造의 대상인 불상이 뒤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여 진다.

十	內	此	佛	願	正	△	(世)	像	阿	同	二	述	全
六	外	石	像	敬	爲	道	至	觀	弥	心	兮	況	氏
徒	三	佛	廿	造	(國)	△	像	音	陀	敬	介	右	△
(也)	百	像	也	化	△	△	也	大	佛	造	木	△	△

도 6.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정면(재판독)



도 7.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재검토 글자: '三百'/'徒(也)', '大(世)至像(也)' - RTI 촬영



도 8.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재검토 글자: 上 또는 正' - RTI 촬영

다음은 불비상의 해독 순서와 관련하여 정리해보기로 한다.

먼저 정면의 '化佛像廿'은 배면의 화불 20구를 암시해주고 있어 두 면의 상관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양 측면은 '癸酉'라는 간지가 있고 각각 우측에 4월과 좌측에 5월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다. 양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간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사찰이 불상보다 먼저 조성된다는 견해를 뒷받침해주기도 한다.

다만 조사기造寺記→조성기造像記의 순서를 반드시 적용하거나,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을 제외한 나머지 3구의 조상기가 간지명干支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이 불비상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우측부터 명문이 적힌 예를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측면부터 해독 순서를 정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우측면에 이어 배면까지 사찰 조영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관점은 화불 20구를 조사기와 조상기 중 어느 부분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요구된다.

따라서 글자가 새겨진 불비상 4구는 형태가 각각 조금씩 다르고, 생긴 형태에 따라 글자가 배치된 위치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의 해독 순서는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정면의 12~14행까지의 마지막 단락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면의 ‘化佛像卅’은 배면의 화불 20구를 암시해주고 있는데, 이 단락의 내용이 어느 부분과 이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단락의 내용을 필자의 견해인 ‘이 석불상은 삼백십육명의 사람들이……’로 해석할 수 있다면, 정면의 내용은 불상의 명칭과 더불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을 알려 준다. 따라서 정면의 내용은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글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측면부터는 불비상의 발원과 관련하여 조사造寺부터의 기록을 나열한 것으로, 우측면에 조사 관련 지식 인명의 나열이 이어지고 시간을 두고 조상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뒷면에는 화불의 발원자 내지는 시주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흐름은 정면에 불비상의 제작을 대표하는 인물부터 화불제작 내용까지 모두 들어가 있다는 점으로부터 추측해 볼 수 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의 해독 순서는 정면-우측-좌측-배면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IV. 맺음말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은 7구의 불비상 가운데 도상圖像적으로 가장 다양하면서 네 면 모두 글자가 새겨져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다. 필자 역시 특별전 과정에서 글자 판독에 대한

호기심으로 글을 쓰게 되었고, 다시 미흡했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판독 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했던 글자들과 해독 순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해 보았다. 선행 연구 자료들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부족하지만 향후 관련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 Reexamination of the Characters Deciphered on the “Amitabha Buddhist Stele with Gyeyu Year Inscription”

Sung Jaehyon\_

Curator, Collection Management Division,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Korean word “*bulbisang*” refers to a stone Buddhist stele with carved Buddhist images on the front or on all four sides and inscribed with a record explaining the background or reason for its production.

These Buddhist steles are cultural artifacts that cannot be left out in the study of Buddhist sculpture and are valuable as a reflection of the society of their time. Though sometimes omitted, the record of production (*josanggi*) contains the date and background to the making of the stele and hence provide great assistance in understanding the social situation of the time concerned.

In Korea, seven Buddhist steles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have been handed down to the present. Among them, four are inscribed with a record of production and have thus attracted wide attention from the time of their discovery, while continued efforts are being made to decipher the characters and the contents of the inscription.

Among the seven existing Buddhist steles, the Jeon Family Amitabha Buddhist Stele with Gyeyu Year Inscription has the largest number of characters inscribed on it. In early research, it was estimated that there were some 260 characters in total, of which 180 were deciphered. Then in 2013, the characters were studied and organized again by the National Cheongju Museum using RTI photography (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As a result, some 20 characters were studied in detail, including ten newly discovered or interpreted ones, and the results were presented as the interpretation of the Cheongju National Museum.

This paper examines several characters among those deciphered in 2013 that seemed to call for further study, and also briefly notes some thoughts regarding the order of their deciphering.

Of the content deciphered in 2013 the most interesting part was the inscription on the front of the stele. By putting this part in order anew, the overall flow of the content on the front of the stele could be more accurately interpreted compared to the existing deciphered content. The first to seventh (vertical) lines were taken as one paragraph, and the eighth to eleventh lines are considered to constitute another paragraph explaining the carving of the transformation Buddhas on the back of the stele. The twelfth to fourteenth lines give added information on the more than 300 patrons who gave alms or dedicated prayers in relation to production of the stele.

Based on the above content, the order for reading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was reorganized. As the inscription on the front of the stele identifies the deities carved on it and the people who were involved in its making, it is the major part of the whole inscription. The inscription on the right side of the stele records that a temple was constructed in connection with the stele and lists the names of the monks who were involved in the project. Also, a time difference is indicated between the left and right sides, which are marked “the fifth month” and “the fourth month” respectively, indicating the order in which the inscription should be read. hwn htoesd a ncie eoeteohr Lsl,tebc fteseii emnl ncied with the names of patrons (alms givers or those making dedicatory prayers) and the words “hwabulsangip” (化佛像廿), referring to the 20 transformation Buddhas carved on the surface, linking the content of inscription on the back of the stele with that on the front.

Through such examination of the contents of the inscriptions on the stele, it can be surmised that the inscription on the front includes the major figures involved in making the stele and information on the transformation Buddhas on the back. Henc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nscriptions on the stele should be read in the order of front → right side → left side → back.